

답을 가진 사람 (열왕기하 5:14-19)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답을 가진 사람이다. 인간에게는 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운명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안되는 것이 원죄의 저주이다. 이것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언약이 필요하다.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대가 되어야 한다. 어디를 가든 이 언약을 잡고 살아야 한다. 99%의 사람은 이렇게 안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 하신다. 아주 틀림 없다. 오늘 답 내기 바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정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냥 의미있게 사는 정도가 아니다.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 보면 군데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미가 살아 있다는 것이 바로 여정이다. 우리가 흐름이라는 표현도 쓴다. 여정은 조금 더 길고 크게, 깊고 표현한 단어라고 보면 된다. 여하튼 이 언약을 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여정이 일어난다. 의미 없이 지나가버린 인생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작품이 된다. 사실은 안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 맘대로 절대 안된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계획대로 하시기 때문이다. 언약 인생에는 반드시 이정표가 있다는 말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데, 중요한 것,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망대,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반드시 여정이 일어나고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부 작품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틀림이 없다. 작품의 내용은 우리가 잡은 언약이다. 다른 것이 되면 안된다. 우리 인생중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행해가시는 것을 보고 여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언약, 그리스도를 잡아야 한다. 다시 한번 심어야 한다. 다시 한번 3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계속하면 무조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언약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표이다. 이렇게 해서 여정도 되고, 이정표도 되는 것이다. 2024년을 시작했다. 올해를 어떻게 살겠는가? 더 확실하게 언약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내 인생에 몇 개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망대를 세운다는 목표로 살기 바란다. 가장 의미있는 한해를 만들기 바란다.

1. 답을 가진 사람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람의 군대장관이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의 나라이고, 현재의 시리아이다. 당시 아주 크고 강한 나라였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왕의 군대장관은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는 큰 용사이거나 병 환자더라.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운명에 걸려서 성공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라가 크고 힘이 있으므로 여러 나라를 침공하였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도 쳐들어왔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 잡아 왔다(왕하 5:2). 나아만 집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어,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들었다. 이 소녀가 답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나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소녀는 엘리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예사로 듣지 않았다. 나아만의 아내는 당연히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왕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꽤히 승낙을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줄 편지도 써줬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람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의 나병을 고쳐주라고 편지도 써서 줬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난 것이다. 그것이 7절이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치료하나 하면서 난리가 난 것이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이 왕이 나에게 시비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10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그 사람 나에게 보내라고 연락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간 것이다. 그 때 엘리사는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자기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말하고 끝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주 노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말하자면 안수하면서 고칠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순전히 자기 생각이었을 뿐이

다. 자기들이 보통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이 조그만 강에서 목욕하라는 말이야? 하면서 가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자 한 종이 나와서 13절에 선지자가 더 한일도 시키면 하지 않았겠냐고 하면서 하라고 하니 이에 나아만이 마음을 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것이다. 그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니 어린아이같이 젊다는 것이다. 그러자 15절에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예물을 주는 데 엘리사가 절대 받지 않았다. 아주 강권을 했지만 엘리사는 절대 받지 않았다.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보면 아주 눈물겨운 고백을 하는 것이다.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달라 하였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를 여호와에게만 드리겠다고 한 것이다. 자기 평생의 저주를 해결해 준, 하나님의 땅 흙을 자기 나라에 가져가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도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일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18절에 한가지 용서할 것은 자기 왕이 다른 우상 섬길 때, 자기가 같이 해야 되니까 그건 내가 림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만큼 답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조그만 소녀 한마디가 한 한마디가 이 중요한 사람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작은 한 마디가 나라를 구하였다. 아람은 점령국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지만 이제는 절대 이스라엘을 알보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나아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절대 쳐들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이스라엘은 다른 점령국중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바벨론때에도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시드기야도, 그때 다른 왕들도 많이 잡혀 왔는데,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왕을 제일 먼저 꼬집어 내 줬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식사 할 때 같이 식사 하였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다. 이런 시대적이고 국가적인 일을 답을 가진 조그만 소녀가 했다. 아람은 당시 큰 나라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아만은 아주 왕에게 존귀한 자였다. 상당히 많은 실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영향이 다른 나라에도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딱 들어가버린 것이다.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아람이 점령한 모든 나라에 이 소문이 퍼졌을 것이다. 아람의 군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치유를 받았다. 아마 즉시로 아람 나라 전체에 퍼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점령한 모든 나라도 다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답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 소녀가 답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 말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쟁 일어나서 잡혀간 소녀가 한명 뿐이었겠는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여자애가 그 핵심적인 그 자리에 들어갔을까? 생각해볼 일이다. 이 아이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에 놓은 것이다. 참 중요한 것이고, 이런 선택을 받아야 한다. 조건이 뭔가? 간단하다. 늘 이야기 하는 것이다.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게 답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답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우리 주인이 거기에 가면 나를 것이라고 답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가면 낫다는 말을 할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답이라고 말해야 한다. 사역자가 아주 간단한 차이인데, 굉장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이 조그마한 소녀는 엘리사 주위에서 일어난 기적을 예사로 보는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다. 눈이 있는 아이였고 감각이 있는 아이였다. 우리도 이래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 무슨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했을 수도 있다. 답을 가진 어린 소녀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한 인간을 평생의 저주에서 건졌다. 못 고친다. 문동병. 아무리 지체가 놓고 아무리 훌륭해도 필요 없다. 그 인간을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 그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이 소녀가 한 간단한 한마디에 세계복음화 일어났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너도 될수 있다고 믿고 언약을 잡으라는 것이다. 내 피가 너의 인생에 답이냐? 그러면 이 답을 원하는 사람을 너에게

볼일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때 이것이 답이라고 말을 해라. 그 메시지 아니겠는가? 그냥 지나간 역사를 쓴 책임자? 하나님은 그런 의미없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도 예사로 쓰게 한 개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한다. 우리도 때로는 많은 기적을 체험한다. 내가 만일 내 인생에 그 치유를 받지 못했으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거기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런 모든 역사를 예사로 보면 안된다. 그러면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다. 눈이 열려야 한다. 영안이다. 어떻게 열리나? 내가 눈 뜬다고 열리나? 답은 하나 뿐이다. 이 답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누려야 한다. 고백을 해야 한다. 그 때 하나님께서 눈 열어준다. 예사인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언약이 되는 것이다. 어느날 그것을 말했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평생에 한건만 있어도 된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답을 낸 사람이다. 사람들은 예수가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친다고 수없이 말을 했을 것이다. 이것을 예사로 듣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 답을 낸 것이다. 실행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많은 비슷한 병을 앓는 여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만 그 기적을 봤나? 소문을 예사로 듣지 않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인생을 결판내는 것이다. 이 소녀도 그 답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답을 잡은 것이다. 우리는 답을 말해야 한다. 답은 하나님이 지명하신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아람나라의 강이 아름답고 깨끗해도 하나님이 지명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천번을 씻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 거기서 뱀의 머리를 깨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70억 인구가 다 죽어도 그것은 광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했다. 요단강이라고. 반드시 그 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그 강에 가면 무조건 역사 일어난다. 하나님이 지명했기 때문에. 약속이다. 지금은 무엇을 약속했나? 무엇을 지명했나? 그리스도. 간단하다. 문제가 뭐가? 안하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90% 이상이고, 알고도 안하는 신자들이 꼭 있다. 한다고 하는데, 아직 답이 안되어 졌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 뭐가 세상에서 가장 바쁜 일인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실제적인 답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바쁜 일이 있겠는가? 뭐에 신경을 많이 쓰는가? 돈인가? 자녀인가? 고쳐야 한다. 그래야 돈도 살고 자녀도 산다. 우리는 답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증인이다. 답은 항상 영적인 것이다.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소녀는 영적인 답을 말했다. 그랬더니 나야만의 육신을 고쳤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진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때문에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번 시작되면 중단을 하지 않는다 그냥 하는 기도는 한번 응답받고 또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것은 응답이 중단되지 않는다. 계속 되어진다. 그래야 작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2. 답이 되어 있는 사람

답을 가진 사람은 시대적인 쓰임을 받게 되어 있다. 대부분 믿고 끝낸다. 믿는것만 해도 귀하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거기에 멈춰서서 평생을 살다가 가면 인생은 실패이다. 답으로 가지고 있으면 시대적인 쓰임을 받게 된다. 이 때 일어나는 것이 작품이다. 이 소녀는 단 한번으로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다. 인생이 작품이 되었다. 개인도 그 집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았겠는가? 답을 가진 자가 받을 축복이다. 답이 뭐가? 그리스도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냥 한 마디, 그리스도 해서는 이해가 잘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가? 훈련하는 것이다.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한다. 기계적으로 들어서만은 안된다. 진도 안 나간다. 적어야 한다. 세밀하게 들어야 한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인생에 언약이 되고 답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역사? 전도 선교의 역사이다.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한다. 지금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답을 가진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 필요 없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상관 없는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는것에 대해서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는 것은 답이 없기 때문이다. 노예고 감옥이고 아무 필요 없다. 감옥을 넘어설만한 답이 있으면 관찮은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 안 따라간다. 싸울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다. 답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저런 일들이 필요하겠는가? 답이 있는데? 그런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난리 난다. 이스라엘 왕이 그랬다. 영뚱하게 오해하고 쓸데 없는 결정하고 그런다. 시비걸라고 그런다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답이 없으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 큰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패닉이 된다. 가만히 있는 옷은 왜 찢나? 답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답이 있는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에게 보내라. 밖에 나가지도 않는다. 그냥 앉아서 말하는 것이다. 가서 인사하고 이것도 필요없다. 말씀이 성취되면 끝이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그대로 전달하고 끝. 남의 말이 아니고 우리 말일수도 있다.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아직 내게 답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여전히 완전하고 영원한 답인데, 그것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저기 있는 것이다. 그 답이 성경에 있고 메시지 노트 안에 있다. 그것이 아직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만 아는 것이다. 쉽지는 않다. 맘대로 되지는 않는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분명한 것은 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이 언약이 내게 들어와서 답이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이 답을 나에게 말해야 한다. 계속 말해야 한다. 매일 말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3직으로 거기에 관련된 말씀으로 매일 고백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깊이 고백되는 사람은 그대로 하면 된다. 이게 최고다. 그런데 잘 안되는 경우도 있다. 그 때는 성경구절을 써 보는 것이다. 각인에는 쓰는 것이 가장 좋을수 있다. 그러면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이다. 오래 할 필요도 없다. 1분이면 된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나의 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인생 작품 나온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다. 전에는 나도 작품이라는 소리 잘 못했다. 내 현장에서 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 입에서 이 단어가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내가 가장 주도적으로 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쓰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려고 메시지 자주 듣는 것이다. 그냥 차타고 가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적는다. 옛날에 적었던거 뒤집어 보면 정말 은혜되는 명언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게 답이 되어 있으면 이 소녀와 같은 인생 살수 있다. 사람들은 답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무슨 문제나 정확하게 답이 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엘리사같이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된다. 엘리사는 선지자였지만 답을 가진 전도자였다. 움직이지 않는다. 한 자리에 딱 있다. 그런데 계속 전도 일어난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 감옥에 있는데 전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계속 제자들이 찾아오고 메시지 주고 보내고, 이것이 성경적 전도이다. 이것을 성경에 쓴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그 출발이 어딘가? 갈보리산,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당연히 도단성 운동같은 시대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제자가 그 아래 있었다. 이 답을 가진 엘리사같은 제자가 많이 일어나기 바란다.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보라. 내게는 그리스도가 답인가? 나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답으로 잡고 있는가? 내 인생의 저주를 해결할 답으로 잡고 있는가? 나는 내 모든 문제에 이 피로서 도전하나? 아니면 믿고 끝내나? 구원이 가장 귀하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멈춰있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 남미 램넨트 다민족한다. 올해는 남미 오천종족 운동 들어간다. 분명히 100팀, 일어나고 천팀 일어나고 만팀 일어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다. 이것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언약이 되기 바란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영권, 응답이 달라진다. 응답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진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세상은 막변하고 있다. 눈 뜨고 언약잡고 들어가야 한다. 올해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많이가 아니라 중요한 몇가지의 망대를 확실히 세우는 2024년 다 되기 바란다.